

現代패션에 나타난 러프 칼라에 關한 研究

尹善美* · 裴水晶

全南大學校 衣類學科 博士課程*, 全南大學校 衣類學科 助教授

A Study of Ruff Collar Reflected on the Late 20th Century Fashion

Yun, Sun-Mi* and Bae, Soo-Jeo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new understanding the aesthetic value of a ruff collar and to expand the border of creation in designing as the source of inspiration being applied to an retro style by inquiring various ruff collars re-illuminated in the present-day fashion trend.

The ruff collar investigated through the above historical contemplation became the source of inspirations in the current retro trend and was variously modified in modern fashion.

In the 1980s, we can find a dignified and feminine image in graceful and exquisite suits or dresses. Especially, the spanish round ruff of the 2st period appeared on works by a lot of designers. From the application by designers like John Galliano in the latter half of the 80s, we can be well aware that the meaning of decoration was newly altered. In the 1990s, the ruff collar was shown in various fashion style, but it was what was reborn as a factor of modern fashion through a liberal compromise and harmony. Various style was shown from exaggeratedly swelling one to smaller one, which were more diversely applied than that of the 80s. A Medici collar and a Queen Elizabeth collar were also displayed being fitted to a modern sense by Vivienne Westwood and Louis F raud. A ruff in the 2000s was settled as a factor of modern fashion, exposing on works of designers more often than in the 1980s and 90s. The spanish round ruff appeared on garments, while a Medici collar and a Queen Elizabeth collar went out of sight. A new form of the ruff was regenerated by extreme magnification and simplification, and several designers like Issey Miyake and Alexander Mcqueen brought forward a new way in materials and technical skills.

According to this research, a ruff collar developed as a fashion factor which characterizes a certain period of time, reflecting the aesthetical sense of Renaissance and turning into various and distinct forms. Afterwards, it exerted influence on modern fashion. This is offering the source of inspiration to contemporary designers.

Key words: Post-modernism(포스트모더니즘), Renaissance(르네상스), ruff collar(러프 칼라)

I. 서론

여러 가지 목 장식 중 대표적인 유형인 칼라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의복의 여러 부분 중 중대한 위치에 있으면서,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전체적인 실루엣에 따라서 각 시대마다 독특한 칼라의 모양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대조형의 특징으로 미의식의 반영이라 하겠다. 특히 칼라는 목을 보호하는 기능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인체의 허약한 부분을 은폐할 수 있어 권위주의적인 표현성이 있다¹⁾.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러프 칼라(ruff collar)라고 할 수 있다.

러프 칼라는 귀족들의 권위의식과 사치의 발로로 르네상스 시대를 장식했다. 특히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르네상스 정신을 바탕으로 인체를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파딩게일, 슬래쉬 등의 복식요소와 함께 르네상스의 복식미를 더했다. 러프 칼라는 단순한 크기의 증가뿐 아니라 주름의 변형,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한 레이스 장식이 더해짐으로써 발전하고 변화했다. 100여 년에 걸쳐 나타나는 러프 칼라의 형태적 다양함과 독특함은 복식요소로서 미적 가치가 충분하다 사료된다. 더욱이 현대 패션에 있어서 과거에서 영감을 얻는 복고적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유명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자주 등장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스타일의 창조나 발전은 과거와 단절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알퐁 시인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67)는 “현재를 대변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²⁾라고 하였다. 과거의 도입이란 방식은 인간 내면의 욕구를 복식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개인의 표현력 창출의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고주의적 경향은 20세기 말의 예술양식 및 패션을 잘 표현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양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프 칼라의 기원 및 형태변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을 고찰하고, 현대 패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러프 칼라의 역사적·미적 가치를 인식하여 오늘날의 복식

디자인에 창조의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내용에 있어서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장은 과거에 착용된 러프에 관한 고찰이고, 3장은 현대 패션에 응용된 러프에 대한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러프 칼라의 기원과 변화를 남성과 여성 복식에서 고찰했고, 러프 칼라의 유형을 주도했던 스페인,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러프 칼라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았다. 형태 변화의 고찰에 있어서 시기를 3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1560-1580년에는 러프 칼라의 형태가 정착되었으며, 1581-1600년은 유행의 절정을 이루면서 극도로 과장되고, 1601-1630년은 다양한 형태의 러프 칼라가 출현한 시기이었다. 3장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를 알아보고, 4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나타난 러프 칼라를 패션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별로 살펴봄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러프 칼라가 어떻게 재조명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자료는 과거에 착용된 러프의 고찰에 있어서 서양복식사, 미술사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선행논문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현대 패션에 응용된 러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1980년에서 2001년도까지 Mode et Mode, collection, Gap 등의 패션잡지와 인터넷에 나타난 그림자료를 바탕으로 형태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II. 러프 칼라의 기원 및 유형 분류

중세가 폐쇄적이고 금욕적임에 반해 분열적이고 개방적인 근세는 인본주의 정신이 크게 부각되어 자연과 인간, 인체를 중요시하게 되었으며⁴⁾, 복식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었다.

근세로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형태는 인체를 과장하고자 하는 표현이 지나쳐 인체의 체형을 왜곡, 변형하였다. 코르피케(corps-piqué)나 스토퍼머(stomacher) 등의 몸통을 줄라매는 콜셋(corset)과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파딩게일(farthingale) 등의 인공물이 사용되어 인체를 무시한 과장된 실루

옛을 이루게 되었다⁵⁾. 이러한 경향은 목 부분에도 반영되어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독특한 장식인 러프(ruff)의 출현을 가져왔다.

다양한 러프의 고찰에 앞서 러프가 출현하게 된 기원을 남성복식과 여성복식에 있어서 살펴보겠다.

1. 남성복식에 있어서 러프의 발생

16세기 초기 더블릿(doublet)은 칼라 없이 스퀘어나 라운드형의 낮은 목둘레였다. 데콜레떼(décollete) 라인을 이룬 네크라인에 자연히 안에 입은 셔츠가 많이 보이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셔츠를 점차 장식하게 되었다. 1498년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자화상에서 셔츠의 네크라인에 달린 프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6세기 셔츠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그리고 이후 좀더 가슴이 가려지고 목선이 올라와 있는 셔츠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크기가 커진 러플(ruffle) 주위를 블랙워크(black work)⁶⁾로 장식하기도 하였다(그림 2).

1520년 이후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더블릿이 몸매 꼭 맞고 목둘레가 점점 높아지면서 하이 네크라인이 되자, 셔츠의 목둘레도 자연히 위로 올라가서 전보다

는 조금 더 큰 러플이 달리게 되었다(그림 3). 네크라인이 수평으로 위로 올라가 스탠딩 칼라를 이루었으며, 그 위로 보이는 셔츠칼라에 좁게 러플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540년 이후 더블릿의 칼라가 귀에 닿을 정도가 되면서, 셔츠에 부착된 화려한 자수를 한 러플은 점점 커지고, 정교한 S자 주름으로 만들어져 셔츠에서 따로 분리되면서 러프로 변했다. 폰벤(Max von Boehn, 1863-1927)은 1544년 게오르게 펜츠(George Pencz, 1500-1550)의 자화상에서 러프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⁸⁾.

이처럼 남성복식에 있어서 러프 칼라는 더블릿의 칼라가 낮아지면서 셔츠의 칼라가 러프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셔츠에서 분리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복식에 있어서 러프의 발생

16세기초 여자 가운(gown)의 네크라인은 남자복식의 더블릿과 마찬가지로 스퀘어나 라운드로 깊이 파여 데콜레떼를 이루었다. 이는 가슴을 심하게 노출시켜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가슴



<그림 1> Self Portrait, by Dürer, 1498 (서양복식문화사, p.184)



<그림 2> Portrait of Gentleman, by Battolomeo Veneto, 1520 (History of costume, p.270)



<그림 3> Archduke Ferdinand of Tyrol, by Seisenegger, 1542(20,000 years of fashion, p.228)

노출은 처음엔 슈미즈(chemise)를 끌어올려 가렸다. 그리고 슈미즈에 자수를 놓아 장식하거나 목걸이나 펜던트로 장식하였으며, 남자의 복식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복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까운의 네크라인은 하이 네크라인을 이루게 되고, 스탠딩 칼라 위를 슈미즈의 러플이 장식하게 되었다. 그 예를 <그림 4>에서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이는 파틀릿(partlet)을 이용한 하이 네크라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이는 스캐어 네크라인에서부터 시작되는 요크 칼라로 구성되어 있으며⁹⁾, 영국의 메리어왕(Queen Mary I, 1516-1558) 재위 중 주로 착용되었다.

1530년경부터 슈미즈의 러플은 커지기 시작해서 목 주위를 아름답게 장식했다¹⁰⁾. 당시 스페인의 유행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황후 이사벨의 초상화에서 스탠드 칼라가 달린 파틀릿과 손목에 좀더 많은 주름이 잡힌 러플을 볼 수 있으며, 특이하게 아치형을 이룬 까운의 네크라인을 발견하게 된다¹¹⁾(그림 5).

또한 슈미즈가 하이 네크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장식됨에 따라, 까운의 칼라도 같이 발전하면서 러플로 장식되기도 했다. 바디스의 여밈과 러플이 좀더 올라가서 목을 감쌌으며, 슈미즈 뿐 아니라 까운의 목둘레에서도 작은 러플 장식을 볼 수 있다(그림 6).

이처럼 초기의 러플은 슈미즈의 칼라처럼 소형으로 장식되어 슈미즈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것이었으나, 1560년경 칼라를 따로 붙이는 러프가 유행되면서 러프의 크기는 스커트의 크기와 비례해서 확대되어졌다. 러프의 주름과 스커트의 주름은 서로 리드미컬한 조화를 이루어서 까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¹²⁾.

러프는 한순간 갑자기 나타난 스타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서서히 르네상스시대 복식을 장식한 특징적인 칼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나라마다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씩 달랐는데 프랑스에서는 데글레떼 네크라인을 선호해 러프도 부채꼴의 메디치 칼라가 많이 나타났으며, 스페인에서는 하이 네크라인의 가운을 선호해 원형 러프가 애용되었다. 후기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면서 모두 착용되었다.

3. 러프 칼라의 유형 분류

각 나라마다 나타나는 러프의 유형은 독창적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 영향을 주었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러프는 세가지인데, 스페인의 원형 러프(round ruff), 프랑스의 메디치 칼라(Medici



<그림 4> Portrait of a Lady, by Bernardino Luini, 1515 (History of fashion, p.196)



<그림 5> Empress Isabella of Portugal, by Titian, 1535 (20,000 years of fashion, p.223)



<그림 6> Mary I, by Antonis Mor, 1554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83)

collar),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칼라(Queen Elizabeth collar)이다.

스페인의 원형 러프는 기원부터 러프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낮은 목둘레에 작은 러프가 장식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목둘레가 높아짐에 따라 그 위의 러프도 커지고 정교해져 독립된 장식물로 정착되었다. 러프는 지속적으로 커져 귀를 가릴 정도에 이르고 16세기말이 되면서 그 폭과 두께가 훨씬 커져 과장적인 형태를 띤다¹³⁾. 또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주름이 나타나면서 튜블러형¹⁴⁾이나 나비형¹⁵⁾ 같은 다양한 러프가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성을 고려한 앞이 트인 형태도 있었다.

세기가 바뀌어도 17세기초에는 원형 러프의 유행이 지속되고 오히려 크기는 축소되어 중간크기의 것이 착용된다. 또한 이 시기에 그 형태와 소재, 색상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주름의 크기와 규칙성에 변화를 주었으며, 메탈소재나 회색 등의 다른 색상을 이용하여 색다른 러프를 시도했다. 이 원형 러프는 거의 스탠딩 칼라에 착용되었으나 17세기에는 라운드 네크라인에 착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형 러프는 항상 뽀뽀하게 풀을 먹여 착용했는데, 17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풀기가 빠진 폴링 러프의 형태로 변한다¹⁶⁾.

프랑스의 메디치 칼라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앞이 트인 대담한 스타일이다. 스페인의 원형 러프와 동시에 착용되었으나 훨씬 인기가 있었으며, 데콜레테의 네크라인에 부착되어 여성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메디치 칼라의 가장자리 주름 또한 원형 러프의 주름과 비슷한 양상을 띠면서 커지고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16세기말이 되면서 평평하고 얇은 형태로 변화하였다. 크기도 점차 커졌으며, 네크라인 또한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까지 지속되었으며, 결국 칼라는 뒤로 넘어가고, 네크라인은 더욱 내려가 과장적인 모습을 띠었다.

영국은 메디치 칼라를 변형한 퀸 엘리자베스 칼라를 유행시켰다. 이 독특한 러프는 당시 패션리더였던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I, 1533-1603)이 주로 착용하였으며, 레이스를 이용하여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

다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형태는 작은 것이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 크기가 커지고 러프

<표 1> 러프의 유형 분류

유형 시기	원형 러프	
	도식화	특징
제 1기 (1560-1580)		• 귀밑까지 발전된 스탠딩 칼라 주위로 러프가 장식되었다.
		• 주름이 더 커지고, 귀를 덮을 정도로 전체적인 러프의 크기가 커졌다.
제 2기 (1580-1600)		• 거대한 크기로 발전되었으며, 주름의 크기 또한 커졌다.
		• 얇고 가벼운 레이스의 소재로 만들어진 튜블러형 러프도 착용되었다.
제 3기 (1601-1630)		• 러프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아래로 향한다.
		• 풀을 먹이지 않은 러프가 유행한다.
유형 시기	메디치 칼라	
	도식화	특징
제 2기 (1581-1600)		• 얇아져 평평한 형태로 바뀌었다. • 네크라인은 더욱 내려갔다.
	제 3기 (1601-1630)	
유형 시기		퀸 엘리자베스 칼라
	도식화	특징
제 2기 (1581-1600)		• 나비형의 러프가 확대되고 네크라인은 더욱 내려갔다. • 컷워크 레이스를 이용해 섬세하게 장식했다.
	제 3기 (1601-1630)	

의 주름도 커져 17세기에는 크고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힌 과장적인 형태의 러프도 볼 수 있다. 점차 메디치 칼라와 마찬가지로 얇고 평평하게 변하였는데, 처음에는 작은 주름만 있던 것이 후에는 완전히 평평한 형태의 러프로 변하였다. 또한 그 모양에 있어서도 다양하여 하트형이나 부채형의 러프가 깊이 파인 데콜레테 네크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고찰 결과 나라별 다양한 유형의 러프를 그 형태변화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제 1기인 1560-1580년은 러프가 하나의 독자적인 장식물로 형태를 갖추는 시기이며, 제 2기인 1581-1600년에는 복식의 과장된 크기에 맞추어 극도로 과장된 러프가 등장한 시기이며, 제 3기인 1601-1630년은 다시 1기의 크기와 비슷해지면서 소재와 형태, 색에 있어서 다양한 변형을 이룬 시기이다. 이처럼 러프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기의 흐름에 따라 비슷한 변화를 보여주었고, 형태에서뿐만 아니라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러프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의 도식화는 “Wilcox, R. Turner”의 「The Mode in Costume」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III. 현대패션의 역사주의

역사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해석은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일반적으로 역사학에 있어서 역사는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과거를 판단하고 현재에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¹⁷⁾ 칸트(Kant, 1724-1804)는 “역사를 과거에 일어난 일 또는 그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콜링우드(R. G. Collingwood, 1889-1943)는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이며 역사학이란 “과거의 역사를 연구중인 역사가의 사상을 현재의 그의 마음속에 재현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⁸⁾

역사주의란 과거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사실의 개별적, 일회적인 고유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실 그대로, 즉 그 사실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속에서 규명함을 원칙적으로 하는 연구 태도이며,

사상적 의미에서의 이 개념은 모든 사물을 생의 끊임 없는 생성 변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이성주의적, 자연법적 사상을 거부하는 세계관을 의미한다.¹⁹⁾ 즉 학문적으로 과거 사실의 의미를 해당시대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198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은 이성과 진보의 개념보다는 역사 속에서 비합리성 또는 특수성, 신비성 등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는 역사학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에 이르러 의상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전키는 계기가 되었다.²⁰⁾ 구체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모더니즘의 추상적 경향에 의해 결여되었던 예술의 상징성을 과거의 역사적 요소를 참조하고 이들을 해체·과장·확대·축소하여 새롭게 창조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예술분야에서는 ‘역사주의’로, 복식에서는 ‘복고적 경향’으로 나타났다²¹⁾.

의상에 있어서 역사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되는 시대적 양식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적·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어떻게 의복이라는 조형요소에 새롭게 구현되는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²²⁾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20세기 의상에 나타난 역사주의는 모더니즘 이후 패션의 불안정성, 불연속성 그리고 다원성을 배경으로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단순한 역사의 모방이 아니라, 역사적 아이템을 이용하여 현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절충시킨 역사적 절충주의(Historical Eclecticism)로 보는 것이다²³⁾.

복식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복고적 경향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현대 패션의 큰 줄기를 이루어오고 있는데, 시기별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복식 디자인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과거 복식요소의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자 참신한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는 시기였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고 다양한 연출들이 시도되었는데, 고대로부터 심지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기의 복식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복고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대중화

되지는 않았다²⁴⁾. 이러한 복고 경향은 90년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으며, 패러디를 통한 과거의 이미지의 재조합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적 요소들간의 조화를 표현하는데 있어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²⁵⁾.

포스트 모더니즘의 복고적 현상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현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때 복고의 유형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에 의해 전달되는 것으로 과거의 유형적인 함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²⁶⁾. 즉, 과거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스타일·실루엣·특정 아이템이 현대적인 재질·새로운 기술·현대적 디자인과의 결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통적인 직물과 패턴, 과거의 제작 기술 등이 도입되기도 하며, 향수를 유도하는 장식·헤어스타일·액세서리 등이 함께 출현하기도 한다. 이상의 요소들은 자유로운 절충과 결합의 조합 속에서 현대패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의 한 좋은 예로써 등장한 것이 20세기 후반의 패션에 재등장한 러프 칼라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패션의 복고주의적이고 동시에 절충주의적인 역사주의가 어떻게 러프 칼라에 응용되어 나타나는지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러프 칼라의 응용

과거의 차용에 있어서 르네상스 복식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디자인 요소는 현대 패션에서도 자주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러프 칼라는 르네상스 복식을 어느 것보다도 명확하게 특징짓는 요소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복식에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의상의 해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나타난 러프 칼라를 고찰해 보았다.

1. 1980년대

198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복식에 도입되는 단계로써 체계화되지는 못했으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파리의 패션계는 1970년대부터 차례로 등장한 민속풍(folklore), 펑크(punk), 일본 디자이너 등의 영향에 의한 비서구적이고 전위적인 디자인 조류에 중지부를 찍고, 파리를 중심으로 한 서양의 오랜 전통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²⁷⁾.

세계의 패션계는 오뜨 꾸뛰르(Haute Couture)와 역사적 전통을 가진 브랜드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디자이너들은 외관의 신선함과 즐거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²⁸⁾. 이러한 패션계의 변화에 따라 아방가르드 패션도 방향전환을 이루게 되었는데, 1980년대 이후 오뜨 꾸뛰르와 클래식에 근거한 아방가르드가 디자인 컨셉 뿐만 아닌 재단과 테일러링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추구되고 있는 현상²⁹⁾에서 그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샤넬(Gabriel Chanel) 컬렉션의 의상에 나타난 칼라는 형태로 보아 제 2기의 스페인식 원형 러프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흰색의 러프가 검정색 수트에 포인트를 주면서 자연스러운 주름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그림 7). 니나 리찌(Nina Ricci) 의상에 나타난 칼라도 스페인의 원형 러프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며 어깨를 덮을 정도의 크기와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미루어 제 2기에 나타났던 형태를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종전의 한가지 색상만을 사용했던 것을 검정과 흰색을 같이 사용하여 의상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파코 라반(Paco Rabanne)의 웨딩드레스에 나타난 칼라는 제 2기에 속하는 퀴 엘리자베스 칼라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권위와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러프 칼라를 웨딩드레스에 응용하여 웅장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그림 9).

존 갈리아노(John Galiano) '89/90 F/W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칼라는 상당히 변형된 형태의 러프 칼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장적으로 올라온 칼라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라기 보다는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체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패러디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주름과 칼라의 형태에서 러프에



<그림 7> Chanel, Mode et Mode, '85 S/S p.66



<그림 8> Nina Ricci, Mode et Mode, '88 S/S p.63



<그림 9> Paco Rabanne, Mode et Mode, '86/'87 F/W p.46



<그림 10> John Galiano, Mode et Mode, '89/'90 F/W p.128

서 영감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0).

이와 같이 1980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복식에 도입되면서 나타난 복고경향이 당시 오프 꾸뛰르적이고 클래식한 패션 경향과 맞물려 러프 칼라는 우아하고 화려한 슈트나 드레스에서 권위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특히 제 2기의 스페인식 원형 러프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형태에 있어서 주름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크기도 다소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디자이너가 아닌 다양한 디자이너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러프의 이미지는 1999년대에 가까워지면서 존 갈리아노 같은 실험정신이 강한 디자이너에 의해 응용되면서 외적인 형태의 변형과 함께 패러디 요소가 가미되어 내적 의미 또한 현대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2.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욱 체계화되었고 복식에 있어서 복고경향은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또한 패션의 흐름은 여러 의미의 가치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면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충동적인 혼돈의 양상을 띄게되어 기존 복식

형태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유행을 만들어냈다³⁰⁾. 따라서 복고적인 요소는 단순한 시대적 재현이 아니라 다양한 복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절충과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러프의 권위적이며 화려한 이미지는 주로 고급스럽고 특이한 소재의 사용으로 구체화 되었다. 엠마누엘 앙가르(Emanuel Ungaro) 의상에서 보여주는 칼라는 제 2기에 속하는 스페인식 원형 러프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대 의상과 어울리도록 주름을 자연스럽게 변형시켰으며, 러프 가장자리에 보이는 금사로 된 자수 장식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하던 장식 기법으로 의상에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다(그림 11).

스페인에서 유행한 원형 러프 칼라의 응용은 '93-94년도 F/W의 컬렉션에서 특히 많이 보여지는데,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 의상의 칼라는 둥근 형태와 레이스 소재의 사용으로 제 1기 스페인에서 나타났던 러프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12). 지방시(Hubert de Givenchy) 의상에 보여지는 목장식 또한 제 2기에 등장하는 거대한 러프 장식을 응용한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러운 주름이 여러 겹으로 커다란 형태를 이루어 단순한 드레스에 화려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3).

스페인식의 원형 러프와 함께 메디치 칼라나 퀸 엘리자베스 칼라 또한 종종 응용되어 나타났다. 파코 라반 의상에서는 제 3기의 평평해진 퀸 엘리자베스 칼라의 응용을 볼 수 있는데, 뒤가 부채꼴을 이룬 단순한 형태의 러프 칼라가 보디스와 이어져서 구성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그림 14).

90년대에는 러프의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소재를 깃털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92/93 F/W 파코 라반 의상에서 칼라의 형태에 있어서는 메디치 칼라를 응용하고 있으나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 메탈로 변형시킴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장식으로 변형하고 있다(그림 15).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코드피스나 슬래쉬 등의 르네상스 복식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컬렉션에서 응용하였으며, 특히 '95-96년 'Vive La Cocotte' 컬렉션에서는 현대적인 수트에 조화되는 다양한 러프 칼라를 선보였다³¹⁾. <그림 16>에서 보여지는 칼라는 제 2기의 스페인 원형 러프를 재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8세기의 남성복과 16세기 러프칼라를 현대적으로 조화시켜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

는 아이템을 동시대 선상에 나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형태를 창조해내는 그녀만의 독특한 기법이 보인다. 또한 1997년 'Five centuries ago' 컬렉션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다양한 복식요소를 선보였다. <그림 17>에서 보여지는 작품이 그것으로 큰 주름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러프 칼라를 보여주는데 이는 어깨 넓이의 크기로 보아 러프의 전성기인 제 2기 즉 16세기 말기의 스페인식 원형 러프의 형태를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유행되었던 블랙워크까지 그대로 재현하여 현대적인 의상과 조화시킴으로써 러프를 응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1990년대에 복고 경향은 복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러프는 이 시기의 복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절충과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러프는 80년대보다 다양한 시기의 형태가 응용되어 나타났는데, 극단적으로 커진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현대 복식의 형태와 조화되어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스페인 식의 원형 러프는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었으며, 러프가 가장 화려하고 과장되게 나타났던 제 2기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더불어 메



<그림 11> Emanuel Unagaro, Mode et Mode '93/94 F/W p.89



<그림 12> Christian Dior, Mode et Mode, '93/94 F/W p.11



<그림 13> Givanchy, Mode et Mode, '96 S/S, p.53



<그림 14> Paco Rabanne, Mode et Mode, '91 S/S p.9



<그림 15> Paco Rabanne, Mode et Mode, '92/'93 F/W, p.48



<그림 16> Vivien Westwood, '95/'96 F/W, www.firstview.com



<그림 17> Vivien Westwood, '97/'98 F/W, www.fistview.com

디지 칼라나 퀸 엘리자베스 칼라도 종종 보여졌는데 주로 제 3기의 형태가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영감을 얻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적인 복식 요소로 재조명되었다.

3. 2000년, 2001년

2000년대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복식은 더욱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역사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러프는 16세기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현대 복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현대적인 복식요소로 정착되었다. 또한 초기의 형태에서부터 말기의 것까지 다양한 크기가 응용되었고 표현 방법이나 소재에 있어서 상당히 변형되는 양상을 띠었다.

스페인 식의 원형 러프는 다양한 크기의 것이 나타난다. <그림 18>에서 보여지는 칼라의 형태는 제 1기의 러프에서 볼 수 있는 크기로 귀를 스칠 정도로 올라온 러프 칼라가 과장적인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와 함께 조화되어 당시 복식의 이미지를 살리고 있다. <그림 19>의 목장식은 어깨를 덮을 정도의 크기로 <그림 18>의 러프 칼라와 형태 면에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과거의 러프 형태가 많이 사라지고 형태와 소재면에서 변형이 많아짐으로써 1980, 90 년대와 비교하여 현대 패션과의 조화를 더욱 도모하고 있다. <그림 20>에 나타난 목 장식을 보면 상당히 거대하게 변형된 원형 러프를 볼 수 있는데,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의상으로 그의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인체를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작품이며 얇은 소재를 여러층으로 겹쳐 형성된 정교한 벌집모양의 과도한 목장식은 그 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준다. 엠마누엘 웅가로 의상에서의 칼라는 퀸 엘리자베스의 칼라가 여러 층의 주름으로 변형된 것을 보여주며 커프스 역시 조화되어 전체적인 의상에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부여하고 있다(<그림 21>).

이처럼 과장으로 변형이 이루어진 것과 반대로 오히려 단순한 형태로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림 22>의 장 폴 고티에(Jean-Paul Gaultier) 의상에 나타난 블라우스의 목 장식을 보면 상의와 분리되어 원형을 이루면서 귀까지 올라온 형태에서 러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며 주름이 없어지고 단순하게 형태가 변화되어 남성적인 수트와 조화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응용한 러



<그림 18> Viktor & Rolf,
Mode et
Mode, '01/'02
F/W, p.21



<그림 19> Louis Féraud,
collections,
'00/'01 F/W,
p.183



<그림 20> Junya
Watanabe,
Gap, '00/'01
F/W, p.21



<그림 21> Emanuel
Ungaro,
Mode et
Mode, '01/'02
F/W, p.96



<그림 22> Jean-Paul
Gaultier,
Mode et
Mode, '00/'01
F/W, p.20

프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 의상에서는 원형 러프 형태이나 주름이 아닌 작은 튜브 형태의 돌기들이 목 전체를 감싸고 있다. 다양한 색상을 이용한 이 장식은 전체적인 의상과 어우러져 재미있는 효과를 주고 있다(그림 23). <그림 24>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의상에서는 끈과 구슬장식, 메탈을 이용해 러프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아카디우스(Arkadius) 의상에 보여지는 과장적인 목장식은 제 2기에 등장하는 튜블러 형의 러프를 단순하고 재미있게 변형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25).

특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주름을 이용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왔는데³²⁾, 러프가 주름을 이용한 장식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작품은 러프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2001년도 컬렉션에서 다양한 기법과 소재의 러프를 그의 작품에 도입했다. S/S 시즌에는 필름, 종이끈 등의 다양한 소재로 만든 러프를 목 장식에 응용하였으며(그림 26), 또한 F/W 시즌에는 종이 같이 얇은 천을 겹쳐서 가볍게 구성한 스페인식 원형 러프 칼라를 볼 수 있다(그림 27).

이상으로 2000년대에도 역사적인 요소가 복식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러프의 과거 형태는 많이

사라지고 형태나 소재 면에서 변형이 가해짐으로써 1980, 90년대와 비교하여 현대패션과의 조화를 더욱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응용된 스페인 식의 원형 러프는 제 1기에서 제 3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응용되어 나타났으며, 메디치 칼라나 퀸 엘리자베스 칼라는 많이 응용되지 않았다. 형태에 있어서 극도로 과장되거나 단순화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러프가 재창조되었고, 소재와 기법에 있어서 이세이 미야케, 알렉산더 맥퀸, 크리스찬 라크로와 등과 같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얇은 천의 레이어링, 금속, 종이 끈, 종이소재의 사용 등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 있어서 러프 칼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복고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80년대 이후 복식 조형의 소재로 지속적으로 응용되어 왔다. 특히 역사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같은 디자이너에게는 중요한 디자인의 소재가 되었으며, 21세기에 있어서도 이세이 미야케,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노 같은 독창성이 뛰어난 디자이너들에 의해 새로운 소재와 형태로 재창조됨으로써 다른 복식 요소와 함께 조화되어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23> Christian Lacroix, Mode et Mode, '01/'02 F/W, p.73



<그림 24> Alexander McQueen, '00/'01 F/W, Vogue Korea (2000.4) 부록



<그림 25> Arkadius, '01/'02 F/W, Vogue Korea (2001.5) 부록



<그림 26> Issey Miyake, Mode et Mode, '01 S/S p.58



<그림 27> Issey Miyake, Mode et Mode, '01/'02 F/W p.54

VI. 결론

현대의 예술양식 및 패션을 잘 표현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사주의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복식에 있어서 복고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고적 경향에 있어서 과거의 도입이란 방식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인용·재사용·은유·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현대 복식의 창조영역을 넓히고 있다. 즉 과거의 역사를 응용하여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회의와 향수를 재현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감에 따라 역사적 아이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복식요소 중 르네상스 시대의 러프 칼라는 그 독창성과 다양함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의복 착용에 있어서 칼라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러프 칼라의 형태적 변화 과정과 다양성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 사료된다. 특히 러프는 20세기 후반부터 최근의 2001년도에 여러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다양한 기법으로 응용되어 나타남으로써 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러프 칼라를 그 기원과 형태적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한편,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 재조명되어 나타나고 있는 러프 칼라를 응용한 디자인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에 맞는 복식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모티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알아본 러프 칼라의 다양한 형태와 특성은 현대 패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역사적 요소를 디자인에 응용하여 이들을 새롭게 재창조하려는 복고적 경향에서 재발견되어진다.

1980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복식에 도입되면서 나타난 복고경향이 당시 오프 꾸뛰르적이고 클래식한 패션 경향과 맞물려 러프 칼라는 우아하고 화려한 수트나 드레스에서 권위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특히 제 2기의 스페인 식 원형 러프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형태에 있어서 주름은 훨씬 자연스럽게 워지고 크기도 다소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디자이너가 아닌 다양한 디자이너들에게 나타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러프의 이미지는 199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존 갈리아노 같은 실험정신이 강한 디자이너에 의해 응용되면서 외적인 형태의 변형과 함께 내적 의미가 새롭게 변화됨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복고 경향이 복식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러프는 이 시기의 복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절충과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전체적으로 러프는 80년대보다 다양한 시기의 것이 응용되어 나타났는데, 형태는 과장적으로 커진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현대 복식의 형태와 조화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스페인식의 원형 러프는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었으며, 러프가 가장 화려하고 과장되어 나타났던 제 2기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더불어 메디치 칼라나 퀸 엘리자베스 칼라도 종종 보여졌는데 주로 제 3기의 형태가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영감을 얻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적인 복식 요소로 재조명되었다.

2000년대에도 역사적인 요소가 복식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러프는 현대적인 복식요소로 정착되었다. 가장 많이 응용된 스페인 식의 원형 러프는 제 1기에서 제 3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러프가 응용되어 나타났으며, 메디치 칼라나 퀸 엘리자베스 칼라는 많이 응용되지 않았다. 형태에 있어서 극도로 과장하거나 단순화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러프가 창조되었고, 소재와 기법에 있어서 이세이 미야케, 알렉산더 맥퀸 등과 같은 여러 실험적 디자이너들에 의해 얇은 천의 레이어링, 금속, 종이끈, 종이소재의 사용 등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었다.

현대 패션에 응용되고 있는 러프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제 2기에 고찰된 스페인식 원형 러프가 가장 많이 응용되어 나타났다. 이는 제 2기에는 러프의 폭과 두께가 상당히 커져 과장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르네상스인들의 개성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형 러프는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유행되었던 형태로 러프를 특징짓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기의 스페인 식 원형 러프는 외적으로는 르네상스의 시대적 역사성과 내적으로는 권위주의와 개성을 가장 두드러

지게 보여주는 복식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대변성은 복고경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대 복식에 있어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러프 칼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여 시대를 특징짓는 복식요소로 정착했으며, 현대 패션의 복고주의적 디자인의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를 현대 패션에 응용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형태적 재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소재·기법을 통해 변형하는 것은 현대적인 복식요소로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과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복식사는 학문적 가치 뿐 아니라 현대 패션에서의 활용가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시한 러프 칼라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출처가 되기를 바라며, 러프 칼라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의 복식요소는 물론 동서양의 다양한 시대의 복식요소를 연구하여 창조의 영역을 넓히는데 일조하오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 1)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1998, p. 113.
- 2) Martin, Richard and Koda, Harold, The Historical Mode, N.Y., Rizzoli, 1989, p. 7.
- 3) Martin, Richard and Koda, Harold, The Historical Mode, N.Y., Rizzoli, 1989, p. 7.
- 4) 이병주 외, 세계문화사, 일조각, 1993, p. 192.
- 5)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 166.
- 6) 스페인에서 고안된 자수법으로 검은 비단실로 금색·빨강·검정·흰색 린넨이나 실크에 섬세하게 수를 놓은 것임
- 7) 신상옥, 서양복식사, 교학사, 1994, p. 159.
- 8) Max von boehn, Modes and Manners, vol. II,

- Philadelphia, Lippincott, 1963, p. 125.
- 9) Hill & Bucknell, The Evolution of Fashion, N.Y., Bats Ford, 1969, p. 65.
 - 10) 정흥숙, Op. Cit, p. 114.
 - 11)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from Ancient Egpitan to the twentieth centry, N.Y., Harper & Row, p. 306.
 - 12) 박혜령, 중세말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칼라형태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17.
 - 13)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Y., Charles Scribner's sons, 1983, p. 145.
 - 14)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vol. I, N.Y., Crown Publishers. Inc., 1976, p. 444.
 - 15) 신상옥, Op. Cit, p. 173.
 - 16) Blanche Payne, Op. Cit., p. 330.
 - 17) Stern, F., The Varieties of History: From Voltaire to the Present, Cleveland, Ohio, 1956, p. 57.
 - 18) Collingwood, R. G., The Idea of History, Oxford, part V, sections 4-5, 1946.
 - 19) 김영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의 역사, 학문사, 1988, p. 27.
 - 20) 박윤정,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8), 2000, p. 88.
 - 21) 정흥숙, Post-Modern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호, 1995, p. 75.
 - 22) Ackerman, J., A Theory of Style, cited in Beardsley, M., Aesthetic Inquiry: Essays on Art Criticism and the Philosophy of Art, Dickenson, 1967.
 - 23) 박윤정, Op. Cit, p. 90.
 - 24) 정흥숙, Op. cit, p.75.
 - 25) 앞 글, p. 75.
 - 26) Ihab Hassan, The Postmodern Turn: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 Ohio State Univ. Press, 1987, p. 29.
 - 27) 엄혜정,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제 22권 3호, 1998, p. 77.
 - 28) 앞글, p. 77.
 - 29) 古典と前衛, Gap, (株)ギャップヅャパン,東京, 1992. 2. pp. 25-29.
 - 30)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1997, p. 20.
 - 31) 방수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999, p. 133.
 - 32) 김영주, 섬유예술에 있어서 주름형태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6.